



준령(峻嶺)을 오르는 산벗들에게

- 1950년 9월 생
- (前)사법연수원 제19대 원장
- 경북사대부고 졸업
-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 (現)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직무대행 (법학박사)
- 제14회 사법시험 합격(72년)
- (前)청주지방법원 법원장



손기식

I. 글머리에

차거운 북풍이 세차게 불고 진눈개비가 펄펄 날리는 악천후 속에서 오로지 정상복의 야망을 품고 일로매진(一路邁進)하고 계실 동지 여러분께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비교적 빨리 졸업과 동시에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행운의 덕분임을 절감하며 저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이켜 반성정리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산행을 대비한 마음의 각오를 새로이 하고자 합니다. 여기 저의 주관적 체험을 솔직담백하게 토로함으로써 동지 여러분의 지루한 산행에 다소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II. 산행 준비

1968년 경북사대부고를 졸업하여 나의 적성이나 취향에 가장 맞고 또 부모님들이 원하신 법대로 진학하였고 그 후 법대에서의 생활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자는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는 충고를 받아들여 대학생활을 어떻게 만끽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법대 산악회의 첫 인왕산등반에 참가하여 숙연한 압박과 산마루서의 산사나이들의 멋진 합창에 반하여 그 날로 산에 미치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비록 등반기술에선 남보다 나은 바 없지만 나의 내면은 진정 산을 아끼며 사랑하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으리라. 그리하여 매주 일회 근교 Rock Climbing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추석과 방학 중의 원정등반에도 열심히

참가하였다. 특히 1학년 겨울방학 중 한라산 등반에 참가, 한껏 설경을 감상하고 Ski까지 즐기는 고생스러우면서도 그야말로 멋진 등반을 하고는 여세를 몰아 제1회 전국대학생 적설기한라산등반대회에 참가, 우리 법대산악회가 우승기를 획득한 것은 크나큰 수확이었다. 무려 한 달가량 걸린 원정등반에서 돌아와서는 비로소 민법총칙과 형법총론을 1회독 하였으니 이것이 법과의 첫 상면이었다. 방학이 끝날 무렵 나는 내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였다. 그것은 소학(小學)동기이자 첫사랑인 S와의 언약과 사법시험에 대한 도전이었다.

III. 출 발

2학년 봄 나는 “사법고시의 길은 멀고 험하다. 그러나 강한 인내와 불굴의 투지를 가진 자에게는 결코 어려운 길은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뇌가 아니라 심장이다. 피 끓는 정열로 돌진할 때 그 앞을 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사법고시로 향하는 과정이 인생의 귀중한 경험과 교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사물에서 의미를 발견할 진대 어찌 사법고시에 의미가 없겠는가?”고 비장한 각오를 세우고 정상을 정복하는 날까지 결코 걸음을 쉬지 않으리라 결심하였다. 강의중심으로 착실히 예습을 하고 그때그때 복습하였으며 학기말 시험 중에는 열심히 준비하여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거기에만 매달려 다른 생활을 모두 희생시키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된다고 확신하였다.

특히 사법고시는 장기전이므로 긴 안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긴 기간 동안 지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느냐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L군과 함께 김정운선생님으로부터 Classic Guitar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2학년 1학기 동안은 매일 3시간씩 꼭 연습하였다. 어떤 때는 음악에 도취하여 예술의 세계로 몰입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도 가끔 있었다. 그 때 배운 Guitar는 두고두고 마음의 위안이 되었고 사시준령을 외로이 오르는 산사나이의 반려로서 건조한 생활에 윤택함을 가져다 주었다. 주말에는 근교등반으로 머리를 식혔다. 2학년이었지만 매일 착실히 도서관에 붙어 앉아 있었던 탓으로 제법 주목 당하였다. 여름방학은 대구 근처 팔공산 동화사 서별당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때 철웅스님과 인연을 맺게 되어 불심에 대한 이해를 할 기회가 되었고 또 심신수련법인 단전호흡법을 배워 실행하였다.

IV. 강행군

2학년 겨울방학은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 보내고 나니 민·형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되었다. 2월말 상경하여 소송법을 1회독하고 3학년을 맞았다. 차근차근 강의 진도에 따라 나가되 방학 중에는 다음 학기에 배울 부분을 예습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이젠 강의도 모두 황금강의이고 실력이 일취월장할 시기였다. 여름에 1차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밤낮으로 책과 씨름하는 강행군이 계속되었다. 몸이 피로한

줄도 몰랐고 그저 재미가 있어 자꾸만 읽어 나갔다. 이때처럼 맹목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었다. 개관시간이 끝나 맨 나중에 수위아저씨와 정다운 인사를 나누고 도서관을 나오며 목직한 가방을 옆에 끼고 하늘의 못별들의 은밀한 대화를 들을 때는 가슴 뭉뚱함에 마냥 노래라도 부르고 싶었다.

V. 폭풍우를 만나다

나의 사시준령(司試峻嶺)을 향한 행군은 3학년 여름방학까지는 꺾이나 순조로웠다. 여름방학이 되어 해인사 약수암에서 법서독파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들던 휘몰아쳐 온 폭풍우에 나는 그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된 것이다. 우리들에 대한 최초의 큰 시련이었다. 불안과 고통으로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분노와 증오로 나의 마음은 불붙고 있었다. 해인사 약수암에서 철수하여 집 뒷산 과수원내에 있는 토막을 “일도암(一到庵)”이라 칭하고 정신일도를 꾀하였으나 끊임없이 떠오르는 번뇌를 씻을 길 없어 책을 잡고 울부짖고 싶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의지, 초인적 의지로 이 시련을 극복하자고 이를 악물었다. “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번뇌를 다 끊으리라)”이라고 책상앞에 써 붙여 놓고는 자신을 채찍질했다.

VI. 정상공격 실패

불안한 채로 2학기가 되어 상경하였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무한히 노력하였다. 고맙게도 선배 K형이 우리 후배들을 지도해 주셔서 우리는 공동보조를 취하여 빠른 속도로 책을 읽고 매주 test를 받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던 덕분에 잡념은 많이 잊혀질 수 있었기에 정말 다행이었다. 3학년 2학기는 그렇게 3개월가량 계속하니 공부한 양이 상당하였다. 전과목에 대한 체계적 윤곽과악이 가능했다. 겨울방학이 되어도 하향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계속 학교 도서관에 나갔다. 북쪽 도서관 구석자리를 잡아 아예 거기서 살기로 했다.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면 북악 Sky Way의 눈덮인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답고 시원하다. 식사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열중했다.

긴장이 풀리면 선배 형들을 찾아가 자극을 얻곤 하였다. 15시간씩 계속하면 승산이 있다고 장담했으나 나는 도무지 자신이 서지 않았다. 다만 최선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전진했을 뿐이다. “열매를 딸 생각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물만주라” 던 철웅스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오로지 과정에 충실하였다. 다시 1차를 보고 전력을 다해 2차를 대비하였다. 전과목 4~5회독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험 전일 저녁 때부터 머리가 무겁고 모자를 눌러 씌운 듯이 멍해움을 느꼈다. 그러나 순전히 악으로써 철야를 강행하고 나니 다음 날 아침 시험장인 법대교문을 들어섰을 때는 머리가 완전히 들뜨고 후두부가 목지근하여 시험을 치르러 간다는 실감이 전혀 나지 않고 그냥 멍멍한게 내 정신이 아니었다.

게다가 심장은 왜 그리 뛰는지 마치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모습처럼 처절하

였다. 순간 2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싶어 하늘이 무너지는 듯 눈앞이 캄캄해졌다. 친구의 마후라를 빌어 진통하는 머리를 묶어 진정하고 시험장에 앉았는데 시작 종이 치고 두루마리가 풀리며 헌법문제가 걸린다. 명명한 기분으로 그제야 만년 필에 잉크를 넣고 있었으니 오호통재라! 1문의 서론을 쓰니 이미 15분이상이 경과한 때였다. 이를 악물며 있는 힘을 다해 펜을 달렸으나 시간부족으로 2문은 영성하게 끝냈고 말았다. 눈물이 쏟아져 내릴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느낌이었다. 제발 오후 행정법 시간까지만 참고 견디자고 입술을 깨물었다. 죽을 힘을 다해 두통을 참고 견디며 행정법을 끝내고는 바로 하숙으로 돌아가 난생 처음 세레피아(신경안정제의 일종)를 사먹고 8시간의 숙면을 취하고 나니 다행히 머리는 가라 앉아 다음 날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내가 막판에 너무 무리했던 것이다. 신경과로였다. 시험전일의 철야는 실상가상이었다. 최소한도의 수면은 필요하며 특히 시험기간중의 건강관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곧장 하향하여 답안을 뜯어보니 도처에 허점 투성이었다. 그런데도 막연히 필사적 노력을 근거로 기대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동료한명이 합격하였다. 나중 총무처에 성적을 알아보니 근소한 차이였다. 다만 예상대로 첫날의 헌법과 행정법이 치명적이었다. 좀 더 잘 쳤더라면, 컨디션이 좋았다더라면 하고 후회도 했지만 중앙청을 나오는 나의 심정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다는 새로운 자신감으로 충만하였다.

VII. 기진맥진

이제 졸업반이 되었다. 3월말부터 다시 책을 잡았으나 한 달 동안의 공백기가 무척 무서운 것이었다. 4월초 학원이 술렁이기 시작하자, 원군·돈군·L군과 같이 경주 백율사에 포진하고 4인의 단합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1개월도 채 못되어 긴장이 풀리고 책을 들면 전신이 뒤틀리고 극도로 피로함을 느끼며 더 이상 앉아서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누워 있어도 잠은 오지 않고 마구 뒹굴며 괴로워했다. 극도의 피로감이 엄습해 온 것이다. 소변은 노오랗게 물들어 혹시 당뇨인가 하는 불안마저 감돌았다. 서라벌 출격회수는 주1회에서 나중엔 이틀에 한 번 정도까지 잦아졌다. 더 이상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따금 법당에 좌정하여 자신에 대한 준엄한 질책을 거듭하였지만 생리현상을 극복하기란 어려웠다. 드디어 병원을 찾아가다. 약간의 황달증이라 하였다. 6월말 정든 소금강산과 백율사를 뒤로 하고 회안스님의 작별을 받으며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계속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있어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 열흘간 동화사 양진암에 휴양하며 동화사 약수를 길어와 하루에 두되씩 마셨다. 그러면서도 책은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다시 집근처에 있는 와룡산 성불사로 옮겼다. 이 절에는 우연히 약수암에서 같이 계셨던 헤밍스님이와 계시는게 아닌가. 반가이 맞아 주셔서 약 한 달간 불편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매일 집으로 왕래하며 한약을 달여 먹고, 체력의 증진을 빙자하여 보약도 먹었다. 건강을 위한 모든 처방을 동원해서 실행했다. 식후의 휴식 및 운동을 엄수했다. 머리가 피로한 여가를 이용하여 에릭 시갈의 “Love Story”를 재미있게 읽었다. S의 면회도 반가웠다.

VIII. 전열을 가다듬고

한 달 너머 휴양하며 건강에 주력한 성과가 있어 8월말 상경하였을 때는 컨디션이 호조였다. 황금기를 100% 활용하리라 결심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과목을 정독하여 정리하기로 했다. 예상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정독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초조하게 맘먹지 않았다. 그러나 또 다시 캠퍼스는 소요하였고 나는 L군과 함께 경기도 광주군 상산곡리로 들어갔다. 서울근교라서 교통도 좋고 서울과 연락을 항상 취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산들로 둘러싸인 도로와 마을 및 농원이 이상적인 농촌형으로 비쳤다. L군과 각기 한 방씩 쓰면서 도서관 겸 침실로 사용했다. 다행히 주인택 인심이 좋아 침식은 별 불편 없이 오로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아침마다 뒷산에 뛰어 올라 목청을 터뜨리고, 식후에 조금씩 하는 배드민턴이 재미있었고 소화제로도 A급이었다.

IX. 필사적 정상도전

11월부터는 정리를 하며 암기에 중점을 두었다.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고 난 뒤 제목과 주요논점을 적어 보았다. 나중엔 계획이 지연되고 또 초조하기도 하여 2~3과목을 병행하여 암기해 나갔다. 자신 있게 답안을 쓸 수 있는 기초가 최종기간의 암기에 기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자신은 아직 없었다. 하루 평균 13~15시간을 확보하며 5~6시간의 수면과 식사시간을 제외한 전 시간을 투입하였다. 피로할 땐 산보하며 정의집을 들고 정의를 익히는데 힘썼다. 밥숫가락을 들고도 책을 보고 뒷간에서도 연습한 종이로 복습암기하였다. 이때만은 내가 오로지 14회 사법시험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고마웁게도 S로부터 격려의 편지는 끊임없이 날아왔다. 찬란한 내일을 위하여 오늘들의 고통은 참고 견디자고 서로 굳게 다짐하였다. X-mas도 쓸쓸히 지났다. 잠시 동안 슬럼프에 빠졌으나 연말에 하향하였다가 돌아온 후로는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 둘이서 마음을 합하여 총진군을 하는 도중 L군의 1차 실패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유망주로 지목되던 친구가 1차 실패라니 믿어지지 않았다. 침뚫한 얼굴로 귀향하는 친구를 전송하고 돌아올 때는 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듯함을 느꼈다. 1차를 너무 경시한 탓이었으리라. 이제 홀로 남았다. 잔존자로서 기어코 정상을 정복하리라는 굳은 결의를 하였다.

나는 계획한 대로 사법시험 2차 1주일 전에 있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시험에 응시

하였다. 대학원에서 참다운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기에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고 연수원은 다분히 실무중심인 고로 보다 학구적인 면은 대학원에서 보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공은 형사법으로 지망하였다. 드디어 결전의 날은 다가왔다. 사법시험 이틀 전이었다. 밖에는 함박눈이 펄펄내려 쌓이고 있었다. 필요한 책을 꾸러 놓고 뒷산에 올랐다. 발이 쪽쪽 빠진다. 눈 위에 커다랗게 “합격! 3166!”을 썼다. 나의 모든 소원을 다하여.....정든 산곡을 떠나 한양으로 입성할 때에는 자못 호기로웠다. 법대 앞 하숙에 들어 warming up을 하였다. 오후에 무거운 머리로 병원을 찾았다. 지난해의 쓰라린 경험을 두 번 다시 앓기 위해 예방작전을 펼 것이다. 남들은 맹렬히 정리를 하고 있는 시간에 병원에 누워 2시간가량 영양주사를 맞으며 모래 있을 정상공격을 대비하였다. 신경의 피로가 다소 가시는 듯한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돌아와 푹 잤다. 시험 전날은 첫날 시험과목인 헌법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고사장 내 자리를 둘러보고 필승을 외치는 여유를 보였다. 저녁엔 물건법을 완료했다. 1972년 2월 15일 오후부터 헌법을 선두로 14회 사법시험은 막을 올렸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너었다. 형님이 가까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돌봐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매일 2~3시간의 수면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었고 시험기간 중에는 초인적인 힘이 발동되는 것을 알았다. 3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자. 헌법은 무난하였고 둘째 날 행정법·상법은 득점과목으로 잡고 있었으나 예상외로 “공물사용관계의 사례문제와 고지의무”로 고전하였다. 그 때 대학원에 함께 응시하신 형님이 둘다 합격하였음을 알려 주시기에 다시 사기는 충천하였다. 그러나 셋째 날 민법에서 득점을 하려고 1문의 “권리남용”에 치중하다 보니 2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는 아무리 용이한 문제라도 30분으로 쓰기는 어려웠다. 다급하여 한 장을 잘못 써 지우고 다시 쓰는 과오를 범하고 나머지 15분 필사적으로 펜을 달려 핵심이 되는 부분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의 특질에 관하여 주로 논하고 여타의 것은 언급함에 그쳤다. 감독관에 사정하여 끝을 맺고 나오니 나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었다. 자신 있던 민법에서 시간안배실수로 실점을 하고 말았으니 그 애통함이란 건지기 어려웠다. 다음시간에 있을 민사소송법도 체쳐놓고 멍하니 났을 읽고 있었다. 그러나 형님의 격려에 힘입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하며, 타 과목에서 만회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을 준비했다. 지난 해 성적 중에서 제일 우수한 과목(65.66)이었으므로 상당한 자신을 갖고 수훈을 세우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다행히 두 문제 모두 중시하던 바여서 무난히 쓸 수 있었고 민사소송법에서 사기를 회복하여 마지막 피치(pitch)를 올렸다. 탱크처럼 들진하였다. 밤낮을 쉬지 않고 행군하였다. 전력투구하여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치루었다.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할 작정이었으므로 평소에도 열심히 했고, 14회 사법시험에서 역시 수훈을 세운 과목이었다. 마지막 시간인 형사소송법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펜을 놓릴 힘마저 없어 밖에 나가 물구나무서기를 하며 머리와 몸을 풀었다. 그야말로 죽을힘을 다한 정상도전이었다. 그날 선배들이 베풀어 주는 주연에 참석하고

돌아와 오랜만에 다리를 쭉 뻗고 잤다.

X. 뜨거운 환희!

이튿날 대구로 내려가 부모님께로 달려갔다. 나의 합격을 열망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약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그러나 너무 기대는 마시라고 해 놓았다. 발표일까지 한 달은 완전히 휴식하였고 그동안 청송 약수터를 다녀왔다. 향시 버리를 떠나지 않는 답안지, 민법과 행정법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밤 고향집 주위와 들어가는 길가에 복사꽃, 살구꽃이 만발한 꿈을 꾸었다. 길조이려니 하고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발표 며칠 전 상경하여 산골짜기에 머물다가 3월 16일 발표를 예상하고 시내로 나왔다. 초조한 마음을 달래려고 친구와 영화를 보고는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에 의해 나가 발표를 보라고 쫓겨 나왔다. 친구와 함께 기독교 방송국으로 향해 대학로를 걸어 내려가는데 후배들이 달려와 손을 덥씩 잡으며 “됐어요, 됐어. 합격이요.”라고 외친다. 순간 어리둥절하였으나 그렇게도 갈구하던 합격을 이제 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뭉클해 옴을 느끼며 우리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대학로에서 마구 뛰었던 것이다. 방송국에 가서 명단을 내눈으로 확인하고야 합격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하향했을 때 맨발로 뛰어 나오시며 반겨주신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며 이제 겨우 크신 은혜의 일부나마 갚았구나 싶었다. 모든 사람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는 것이 더욱 즐거운 일이었다. 그리던 S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이란 무어라 형언키 어려웠다. 우리는 굳게 손을 잡았다. 이리하여 3년에 걸친 정상도전은 기어코 뜻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제 정상에 올라 지나온 길들을 내려다 볼 때 과연 장했다고 스스로 느끼며 어떻게 그 험난한 길을 올라왔는지 의아스럽기도 하였다. 3차는 무난히 넘길 수 있었다.

XI. 산행소감

1. 소위 방법론

(1) 강의중심

학교에서의 강의는 매우 중요하다. 체계적 이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억에 오래 남고 예상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진다. 강의중심으로 차근차근 따라 나가면 상당한 수준에 오르리라고 본다.

(2) 기본서중심

처음부터 욕심내어 여러 책과 논문을 보는 것은 지식의 혼란을 초래한다. 기본서 한권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5회독 정도) 다른 교과서나 논문을 참조함이 좋을 듯하다.

(3) 정독·속독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르나 처음에는 속독을 통한 윤곽과악 그 다음 3~4회독부터는 철저한 정독(나의 경우 시간당 5페이지 정도)으로 완전히 이해한 후 최종단계에 가서 속독하며 정리·암기함이 필요하다.

(4) 반추(反芻)의 묘(妙)

한 번 읽은 부분은 가급적 빨리 반복하여 기억의 소멸을 막음이 효과적이다. 나는 전날 읽은 부분을 다음날 짧은 시간 내에 훑어봄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5) 병 독

최종 정리, 암기단계에서는 초조감을 막고 또 권태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2~3과목을 병행해 나가니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많은 양을 암기할 수 있었다. 특히 나같이 책 읽는 속도가 느린 사람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했다.

(6) 법률잡지

고시계와 법정은 꼭 받아 보았고 과월호 중 중요한 것은 선배로부터 전수받아 항상 비치해 두어 참조하였다. 특히 형법총론과 민사소송법은 교과서로서는 도저히 부족하며 그 필요가 절실한 바 있다.

2. 연애에 관하여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정력을 집중함은 필요한 일이나 그렇다고 사법시험을 위하여 자기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애정문제까지 기피하는 것은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닐까 싶다.

더욱이 장구한 세월을 요하는 사법시험준비과정에 있어서 마음 깊이 이해하며, 격려하고 도울 연인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필요하며 그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의 능력과 진지함에 따라 크게 유익할 수도 있다고 본다.

XII. 글을 맺으며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언제나 자식들의 장래를 염려하시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 가르침을 주신 여러 은사님, 항상 뒤에서 돌보아주신 형제자매, 친절한 지도를 해 주신 K선배님, 잡지를 물려주신 K형, 격려 고무해준 친구들, 그리고 언제나 나의 합격을 기도해준 S, 이 모든 분들의 은혜의 덕분이라 생각한다. 동지 여러분! 추후도 긴장을 풀지 마시고 최후의 일본까지 정진노력하십시오. 그 질곡을 하루 속히 벗어나십시오. 사군자중 남은 L군과 K군의 15회에서 필승을 기원한다.